

베델교회 '토요일 야외 현장 예배' 시작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45분
 "주일 0부 예배"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실내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토요일 저녁 오후 6시 45분 '야외 현장 예배'를 시작한다.

"주일 0부 예배"로 명칭된 '토요일 야외 현장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가족 및 개인 단위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참석해 온라인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나눌 예정이다.

베델교회는 "주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실내 예배를 당분간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시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 토요일 저녁에 야외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

다"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매일 하루가 주님의 날이기에 주님의 날을 기념하며 조금 이른 "주일 0부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회는 또 "화려한 조명이나 시설은 아니지만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찾았던 부흥회, 말씀 사경회의 추억을 떠올리며 분당 앞마당에 모여 오직 말씀만 사모하며 모였던 그때 그 시절처럼 주일예배를 드리려 한다"며 "가족단위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외 현장예배는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 QR Code 확인, 예배 장소 방역과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주정부의 방역 안전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현장 예배에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베델교회는 매주 토요일 저녁 오후 6시 45분 '야외 현장 예배'를 진행한다.

미 기독교인 대다수, 코로나 이후 온라인보다 현장 예배 희망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미국 기독교인들. ©Fellowship Church

퓨 리서치 센터 (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미국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코로나 기간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만, 현장 예배로 복귀하고 싶은 열망도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7월 13일에서 19일 사이에 미국 성인 10,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지난 한 달간 미국 기독교인의 3분의 1은 온라인이나 TV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분의 1(18%)은 디지털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답했다. 또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절반 이상(52%)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3분의 1 이상(37%)은 '다소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성인의 42%는 코로나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 '그전만큼 현장 예배를 다닐 의사가 있다'

고 밝혔으며, 다른 10%는 '예전보다 더 자주 교회에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예전보다 교회를 덜 참석할 것이라고 말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여론조사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교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에도, 지난 한 달간 미국 성인의 3분의 2는 온라인이나 TV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시청한 응답자 중 '팬데믹이 끝나면 그전보다 더 자주 시청할 것'이라 말한 비율은 5~6% 사이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 달에 최소 1번에서 2번 이상 예배를 다녔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락 다운이 해제된 이후에 현장 예배보다 디지털 예배를 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10명 중 9명(92%) 이상은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면 자신은 최소한 예전만큼 현장 예배를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10명 중 1명만이 예전보다 디지털 예배로 더욱 시청하면서, 동시에 현장 예배도 참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현장 예배를 덜 가고 디지털 예배를 더 시청하겠다는 응답자는 2%에 그쳤다.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 성인들 중 극소수만이 자신들의 교회나 타 예배당에 실제 참석하는 것을 가상(예배)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만남의교회 "코로나19에 음식 나누며 주 사랑 전해요"

놀스릿지에 소재한 만남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웃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다.

교회는 '블레싱 박스'를 마련하고 교회 성도들이 기부한 음식을 이웃 주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만남의 교회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블레싱 박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와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교회 출입문에 설치된 블레싱 박스는 화요일부터 주일(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문의 : 818) 882-919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이번 주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아시안 행동 주간

2020년 인구센서스 9월 30일 종료
미 참여 한인들 작성 서둘러야

센서스 인구조사 마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인구 조사는 향후 10년 동안 정부 예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통계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집계 누락 시에는 응급 서비스, 교육, 보건 시설, 도로 개선 및 기타 혜택에 사용되는 매년 1인당 할당되는 수천 달러의 연방 정부 자금을 손해 볼 수 있으며, 지역 사회는 의회 의석을 포함한 정치적 대표 선출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이에 인구조사국은 한인 지역 사회를 포함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인구조사 응답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번 주 마지막 인구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조사국은 오는 8월 24일부터 30일까지를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아시안 행동 주간(2020 Census Asian Week of Action)으로 정하고 30개 이상의 단체와 20여 명의 인플루언서가 함께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인구조사국 스티븐 딜링엄(Ste-



ven Dillingham) 국장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집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운영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며 “만일 응답하지 않았다면, 지금 꼭 해야 하고,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는 인

터넷, 종이 설문지, 전화 또는 센서스 인구조사원과 대면으로 응답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2020 인구센서스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거주민은 누구나 온라인, 우편, 전화 등으로 인구조사에 참여 가능하다. 센서스국은 센서스 조사지 안에 법적인 체류 신분에 대한 질문 항목은 없으며, 철저한 보안으로 지역 경찰 등 어떤 정부기관에도 제공되거나 공유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보장 번호(SSN), 현금 또는 기부금, 정당 지원이나 은행 또는 신용카드 번호를 절대 묻지 않는다.

아직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한인들은 웹사이트(2020CENSUS.GOV 또는 2020CENSUS.GOV/ko) 또는 영어가 불편한 경우 전화(844)392-2020를 통해 한국어로 참여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아프리카 차드 돕기, 코로나 사태에도 25달러부터 1만 달러까지 후원금 답지



아프리카 차드 지역 주민들이 쌀 배급을 기다리고 있다.

소망 소사이어티, 당초 목표액 5만 달러 넘어 8만 1천여 달러 모금

지난 7월 말부터 8월 15일까지 ‘아프리카 차드 공화국 돕기 기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이하 소망)가 당초 목표액을 넘어 8만 1천여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소망은 가뭄과 자연 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드 정부의 긴급구호 요청을 받아 3개 마을 2천 가구의 6천 여명을 도울 수 있도록 5만 달러를 목표로 ‘차드공화국 돕기 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었다.

이번 모금 캠페인에는 한인사회

에서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쌀 한 포대를 구입할 수 있는 25달러부터 1만 달러를 기부한 후원자도 있었다.

유분자 이사장은 “처음 캠페인을 시작할 때만 해도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모금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게 되어 정말 감격스럽다”며 한인사회에 감사사를 전했다.

캠페인을 이끌었던 황치훈 이사(해외협력부장)는 “한인 사회 여러 분들의 협력으로 차드공화국 어린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쌀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참여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소망은 지난 17일, 1차로 차드에 5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8월 3주째부터 차드 지역 주민들에게 쌀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또 나머지 금액과 앞으로 후원되는 기부금은 차드공화국을 돕는 사업에 쓰인다고 밝혔다.

한편 소망은 아프리카 대륙 북 중앙에 위치한 차드 공화국에 지난 10년 동안 소망 우물 파기 사업, 소망 학교 건립 사업 등을 진행해 현재 424개의 우물과 5개의 소망학교, 1개의 교회를 세웠다.

후원 참여 문의 562-977-4580 김동욱 기자

베델 신학강좌 “동성애 문제와 기독교 대응 방안 모색”



9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남가주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오는 9월 2일(수)부터 30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미국 서부시간)에 “내 주 반석 위에 든든히 서리라!”란 주제로 제 5차 신학강좌를 연다.

이번 신학 강좌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미국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고찰과 기독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강사로는 이승구 교수(합동신

학대학원), 함영주 교수(총신대학교), 박용규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희석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가 나서 각각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미국 상황에서 대처 방안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교육 >동성애 금지에 대한 교회사적 고찰과 우리의 대응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신학강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베델교회 홈페이지 www.bkc.org에서 등록할 수 있다. 수강료와 교재는 무료이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기쁜우리교회 33명 장학생 선발, 총 6만5천 달러 장학금 수여

“코로나19에도 차세대들에 꿈과 희망 심어”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장학위원회는 2020년도 제3기 장학생 33명을 선발하고 총 6만5,000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기쁜우리교회 제3기 장학생으로는 일반 대학(원)생 10명,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 11명, 신학대학생 12명이 선정됐으며, 이달 말 장학금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장학생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장학사역으로 사랑과 격려를 보내준 교회에 감사로 전했다. 한 장학생은 “우리 가족의 기도 응답해주신 주님과 교회에 감사하다”며 “법조인의 꿈을 이루도록 노력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살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김경진 목사는 “신앙과 뿌리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주님의 사랑을 차세대에게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혼란한 시기임에도 함께 뜻과 힘을 모아준 교회와 교인들의 협력으로 더 많은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돼 감사하고, 앞으로도 장학사역에 관한 섬김의 손길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쁜우리교회는 장학위원회(위원장 최영무 장로)는 “크리스천 차세대들의 꿈과 비전을 격려하고 필요한 학비를 지원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을 감안해 장학 사역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는 2018년 발족 이후 매년 장학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2020년 제3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 ©기독일보

이 시대 최고의 예배 인도자, 타미 워커를 만난다!

월드미션대학교 9월 15일, 예배 찬양 온라인 세미나 개최



월드미션대학교는 타미 워커를 강사로 9월 15일 예배 찬양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예배학과는 9월 15일(화)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시), 세계 최고의 예배 인도자이자 본교 예배학 석사과정 겸임교수인 타미 워커(Tommy Walker)를 강사로 온라인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목회자, 찬양사역자, 신학생, 예배 인도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참가비가 없으며 선착순 등록자에 한해 줌(Zoom) 접속 번호가 주어질 예정이다.

한국 교회에도 널리 알려진 타

미 워커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예배와 찬양의 본질은 물론 예배자의 자세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예배와 찬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내 이름 아시죠”, “나는 주만 높이리”와 같은 찬양을 함께 부르는 일정도 마련됐다.

예배학 석사과정 디렉터 가진수 교수는 “많은 예배 사역자와 예배 찬양 인도자들의 귀감이 되어 온 타미 워커를 온라인을 통해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많은 분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예배와 찬양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고 소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진수 교수는 이어 “월드미션대학교는 앞으로도 수준 높은 예배 사역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한국 교회와 예배자들을 섬기겠다”며 “예배 사역자와 찬양 인도자들이 이론과 실제의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신청과 문의는 전화 (213) 388-1000 또는 이메일 wmuinfo@wmu.edu로 할 수 있다.

한편 예배 인도자이자 가수, 작곡가, 강사, 작가로 활동하는 타미 워커는 1990년부터 30여 년이 넘게 캘리포니아 LA 북부 이글락에 위치한 크리스천 어셈블리(CA) 교회에서 사역해왔으며, 현재 “타미 워커 미니스트리”의 대표와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 석사과정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그동안 프랭클린 그레이엄, 릭 워렌, 잭 헤이포드, 그렉 로리와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사역했으며, ‘He Knows my name(내 이름 아시죠)’를 비롯해 ‘Mourning into Dancing(나의 슬픔을)’, ‘Only a God like you(나는 주만 높이리),

이 시대 최고의 예배 인도자 타미 워커 와 함께하는 예배 찬양 온라인 세미나

2020.9.15(화) 9:00 - 10:00 AM

- 내용 | 타미 워커의 찬양과 예배 이야기, 그리고 Q n A
- 참가비 | 없음 (선착순 50명)
- 참가방법 | 신청자에게 ZOOM 참가번호 공지
- 대상 | 목회자, 찬양사역자, 신학생, 예배 찬양에 관심있는 분
- 주관 |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과 (M.A. in Worship Studies)
- 신청 및 문의 | (213) 388-1000 • wmuinfo@wmu.edu

‘Here I am again(내 마음을 가득 채운) 등 200곡이 넘는 곡을 작곡해 전세계 기독교 예배를 크게 확장, 발전시켰다. 최근에는 CCM과 찬송

김동욱 기자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로
의연하지
않았다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세우신대), 주선애교수(성신대 영도교수)
이영희교수(에스대), 송정영목사(복음선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복로교회), 신장민목사(복음선대 대표),
유관희목사(동묘로교회),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예배 문화로 주목할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집자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영)과 속된 빛은 그를 의연하지 않았다’는 복한 김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선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크라우드: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이벤트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에 있는 차가 무얼까?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달려서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www.marhlaw.com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까.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 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땀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언제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겨림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전문이 없는 것 같 알고 있습니다.

辯護
변호

實力
실력

精誠
정성

責任
책임

信賴
신뢰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ier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은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71

“전 세대 참여를 통한 이슬람선교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읽고(2)

지난주에 이어 J. Cho 목사의 이슬람 선교에 관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에세이 형식으로 이어 가겠다.

“...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지와 선교사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던 것은 선교지와 선교사가 일정 지역에 너무 편중 배치된 것이다. 반면 이슬람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교사 배치가 취약하거나 아예 미전도지역도 많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교회의 선교정책을 미전도 지역 대상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슬람권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두려움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 목회자와 교회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교 프로그램이 인터콥 인터내셔널 선교회가 매년 2회씩 지역별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비전스쿨”이다. 나도 의심 반의 마음으로 비전스쿨을 시작했었다. 첫 주 첫 예배부터 뭘지 모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 그뻘 몰랐으나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에 알게 되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였던 것이다. 그 훈련을 준비한 스텝들과 선교회 본부와 전 지구 네트워크를 통해 수개월 기간 전부터 기도가 이어지고 준비와 동원과 협력의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내용은 1. 이슬람권 선교 필요성 2. 한국 선교사 3. 이슬람 문화와 이해 4. 정보기도와 영적전쟁 5. 세계선교역사 6. 10/40 창 선교보고 7. 성령사역 8. 평생도 전문인 선교 9. 단기선교의 필요성 10.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 등의 내용을 현장 전문 선교사가 동원되어 직접 강의한다. 그리고 훈련 중간 기간에 합숙 선교집회와 비전캠프를 통해 잡자고 있던 성도들의 심령에 선교의 불을 지핀다. 그들의 훈련은 바람처럼 불처럼 강하고 뜨거우나 부담을 갖지 않았다.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이나도 새로운 선교관이 잡힌다. 나의 논문은 현 이슬람 실정, 이슬람에 접근하는 선교의 장단점의 실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발전하고 있는 이슬람의 세계화 등을 각종 연구자의 보고들을 자료로 제시하며 시작했다. 내가 이 연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이슬람 연구들인데도 현 상황과 실태 등은 나열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Misio Dei) 차원에서 교회의 이슬람 선교 전략과 전술이 20년 전에 멈추어 있는 느낌이었다. 그들의 결론은 이슬람은 삶과 종교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다 하며 소극적 자세로 선교의 퇴보를 겪고 있는 20년간 이슬람권 선교, 더 나아가 미전도 개척 선교에 집중하며 전 세계적인 선교 동원에 성공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단체가 인터콥 선교회이다.

개인 취향상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으나 가장 어렵다는 이슬람권 선교지를 향하여 1400명에 이르는 장기 선교사들을 이슬람권 60여 개 나라에 파송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훈련, 후원, 복지, 후방 교회와의 협력, 비전스쿨 리더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갖춘 선교단체로 발전하였다. 이 선교회의 섬기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전스쿨과 FO(단기선교)를 필수 완료해야 하며 선교회의 훈련에 참여한 후 각 지역 선임간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간사 임명은 한국 본부에서 지역 선임과 총무단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이 선교훈련을 차례로 경험하면서 받은 생각은 사도행전 등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려는 제2, 제3의 바울과 같은 사도들로 성도들이 선교사로 발전해 가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이제 40주년을 향해 가는 이 선교회에 기대하면서 갖는 바람은 후방에서 너무 오랜 기간 정체되어 안주하는 스텝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흐르는 물이 맑듯이 지속하여 선교 지원자들이 배출되기를 위해 기쁘게 씬 없이 이어져 가는 선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약하였다. 많은 통계와 이론 등은 지면상 개제할 수 없었다. 이슬람 선교를 향한 에너지 같은 논문을 완성하신 조 목사께 경의를 드린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8) 실패극복

좌절을 거부하라!

요즘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상시에서도 어렵고 고단한 삶이었는데 코로나를 만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다는 하소연은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모든 인생은 어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이나 고단함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의 지난날들은 이런 고난과 아픔을 이겨온 날들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과정과 정마다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희망을 품고 이겨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중입니다.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겨 낼 수 있지만 절망하고 포기하면 사소한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동티모르의 히딩크’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티모르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감독 김신환 감독입니다. 그는 축구의 명문인 장항중, 한양공고를 거쳐 현대자동차에서 축구 선수생활을 했지만, 축구의 꿈을 완전히 버지 못하고 밀려서 은퇴했습니다. 축구를 사랑했지만 뜻을 펼치지 못하고 축구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가진 채 은퇴합니다.

그는 1988년에 축구를 그만두고 전혀 다른 일에 도전합니다. 그는 96년부터 3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즈음 그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실패, 이혼 등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상은 축구밖에 몰랐던 김신환이 헤쳐 나가기는 만만치 않았습다. 하지만 그는 현재 동티모르에서 축구지도자로 새 삶을 삽니다. 그는 현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멋진 축구 감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에 실패한 그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 동티모르로 갑니다. 사업을 위해 현지 조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사를 하던 김신환 사장은 동티모르에 파견되어 있던 상록수 부대장 최철환씨를 만납니다. 육사에서 축구부 주장을 지낸 상록수 부대장 최철환씨는 축구를 사랑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최철환 부대장은 김신환사장에게 동티모르에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 축구를 가르치며 보람 있는 삶을 살아 볼 것을 제안합니다.

최철환 부대장의 권면으로 김신환 사장은 아이들을 모아 축구를 가르칩니다. 맨발로 축구공을 따라다니던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합니다. 김신환씨는 동티모르 청소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동티모르 축구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한 푼 못 받는 감독이었습니다. 지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알찬 지도로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거두어 동티모르의 희망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동티모르의 꿈을 위해 뛰는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의 삶을 살피본 사람이라면 설리번을 만납니다. 설리번은 헬렌의 개인 교사였습니다. 귀, 입, 눈에 장애가 있는 3중장애인 헬렌 켈러가 절망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격려한 사람입니다. 애니 설리번은 헬렌이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 모든 수업에 함께 하면서 강의를 듣고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적어주었습니다. 설리번의 도움을 받은 헬렌 켈러는 왕성한 의욕과 끈끈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스스로 피눈

물 나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하버드대학을 졸업하던 날, 헬렌은 총장으로부터 졸업장을 받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리번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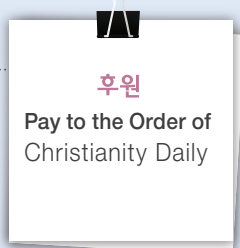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은 헬렌의 뛰어난 천재성과 설리번 선생님의 훌륭한 교육을 일제히 찬양하였습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나 그녀의 스승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안고 있는 헬렌 켈러를 전 세계가 놀라게 한 인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앤 설리번입니다.

헬렌 켈러를 가르칠 방법은 감각기관을 활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술한 노력을 통해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앤 설리번은 늘 되풀이해서 헬렌 켈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 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절대로 포기 하지 말라.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헬렌 켈러가 들었던 그 말을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당신!!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 절망할 수밖에 자리에서 일어서는 용기와 인내가 희망을 만들고 행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세요! 쓰러진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때 행복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기독교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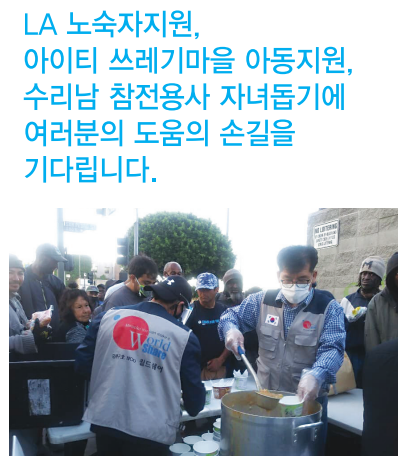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희,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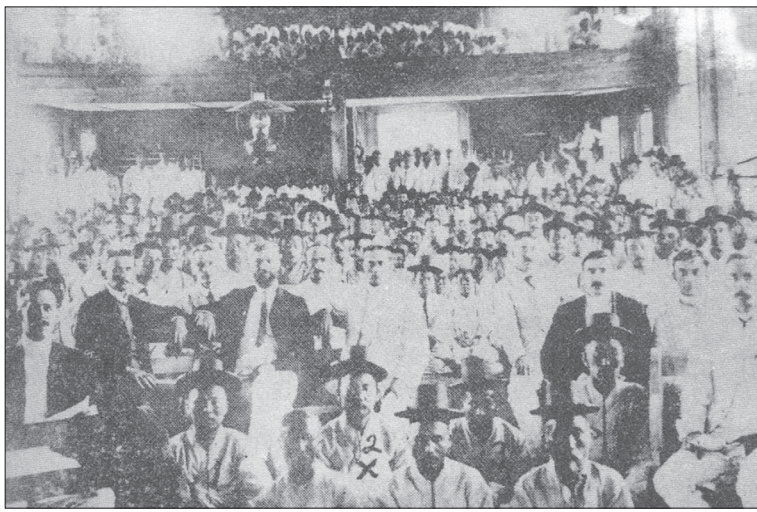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16) 평양 대부흥 운동

“우리가 웨일스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Gorge M. McCune선교사의 선교보고 중에서-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 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밖까지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고무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가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W.A. Noble선교사의 선교보고 중에서-

평양 부흥운동은 민족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한국교회의 체질을 복음주의 기독교로 개선시켰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 민족을 갱생시키고 일제 36년을 이길 소망을 주었던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

평양 부흥운동의 배경

1. 국내적으로는 1894년 청일전쟁에 일본이 승리하고, 같은 해에 명성황후를 일본이 죽였다. 1904년에는 러일전쟁이 일어났는데 또 일본이 승리하고, 1905년에는 을사보호조약에 의해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했다. 조선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전쟁터가 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일본에게 외교권까지 박탈 당했지만 나라를 구할 아무런 힘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하늘 만이 소망이었다. 2. 한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대부흥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19세기 말 무디 중심의 부흥운동과 1888년 시작된 학생자원선교운동(SVM)으로 미국의 수 많은 젊은 이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고 있었으며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3. 1904년에 웨일스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5년에는 인도의 부

흥운동, 1906년에는 아주사거리 부흥운동 등 부흥의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었다.

4. 1903년부터 하디선교사를 중심으로 원산 부흥이 일어나 서울, 평양, 목포, 제물포에 불길이 옮겨가고 있었다. 1906년에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인 하워드 존슨 목사가 웨일스와 인도의 부흥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에서 선교사 사경회를 인도함으로써 한국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더 큰 부흥을 사모하는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

5. 하워드 존슨 목사의 도전을 받고 평양으로 돌아온 20여명의 평양 주재 선교사들이 9월 부터 부흥을 사모하며 매일 정오기도회를 시작했다. 역시 평양 장대현교회를 방문했던 존슨 목사의 도전을 받아 한국의 부흥을 위해 한국의 이반로버츠가 되기로 헌신했던 김선주 장로가 장대현교회에서 같은 교회의 친구인 박치록 장로와 함께 부흥을 사모하는 매일 새벽기도회를 역시 9월에 시작했다.

6. 1907년 1월 2일 부터 열리는 평안남도 연합사경회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김선주 장로의 제안으로 1906년 12월 26일 부터 장대현교회에서 열렸다. 첫날 밤 김선주 장로의 설교가 끝나자 교회는 회개의 울음바다가 되었고 교회에서 죄들을 공개 자백한다는 말을 듣고 범죄자를 잡으러 왔던 경찰 방은덕이 김선주 장로의 설교를 듣고 일어나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공개 자백 하기도 했다.

한국의 오순절 평양대부흥운동

1907년 1월 2일-15일 기간에 평안남도 남자 연합사경회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렸다. 낮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1000명에 가까운 참석이 허락되었고, 밤에는 평양시내 교인들의 참석도 허락되었다. 여자들은 자리가 없어서 4곳의 다른 예배당에 모여 선교사의 아내들이 인도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제가 없었고 1월 13일 밤에도 냉랭하게 모임이 끝

났다. 다음 날 14일에 선교사들은 정오기도회를 가지면서 영적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경회가 끝나지 않도록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김선주 장로가 회개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가 죽기 전에 돈 계산을 잘 못하는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의 돈을 정리하다가 당시 100달러 상당의 돈을 사취했던 사실을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눈물로 고백하고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친구 아내에게 돌려 주겠다고 했다.

김선주 장로의 눈물의 자백이 있던 뒤에 담당하던 분위기는 끝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게 주셨다. 그날 밤 예배가 끝난 후에 600명 가량이 남아서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죄들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고백했다.

현장을 목격한 선교사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제1차,2차,3차 대각성운동과 웨일스의 부흥운동, 인도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고 들었지만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처음이었다고 선교보고서에 보고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블레어 선교사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을 그날 밤에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밝은 빛 앞에선 죄들은 영혼들을 보시듯 그들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다음날 길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도둑 맞은 물건들과 돈들이 되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 되었으며 그 결과 전 시가지가 술렁거렸다.”고 기록했다.

스왈렌 선교사는 “성령께서 임하시니 우리 선교사들이 반 년 동안 해온 일보다 더 큰 일을 성령님께서 반 년 동안에 완성해 주셨고 두 달 동안 2000명 이상이 회심하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흥의 불길

1월 14-15일 양일간에 장대현교회에서 놀랍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네 곳에 분산되어 예배드리던 여성도들의 모임에도 1월19일 밤에 강력하게 임하셨다.

평양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인 남산현교회에도 장대현교회의 부흥이 그대로 재현 되었으며,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평안신학교와 송실대학교와 송덕학교에도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 서로 잘못을 고백하느라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16일 정오선교사 기도회에는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참석했다. 두 시간 동안이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철저히 회개했다. 부흥의 영으로 촉발해진 선교사들은 전국 주요도시들로 찾아가 순회부흥회를 인도함으로써 평양에서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한 달도 못되어 서울, 선천, 광주, 청주, 대구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다.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은 평양 부흥의 현장을 방문했던 캐나다장로교회 중국주재 선교사인 조나단 고포드에 의해 만주와 중국의 부흥으로 확산 된다.

평양대부흥운동의 영향과 결과

1. 평양부흥운동은 사경회 기간에 일어난 말씀에 토대를 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다. 2. 영적각성운동이 사회개혁으로 열매를 맺었다. 교육열이 향상되어 이후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다. 교회의 신앙 수준이 높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소명을 받게 되었다. 수 천 명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성경공부에 참석했다. 놀음, 간음, 일부다처, 조상숭배와 우상숭배의 관습이 없어졌으며 금주, 금연운동이 일어났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양반과 상놈의 신분 타파가 이루어졌다. 성경적 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졌고 도덕성이 회복되었다. 3. 1885년에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입국한 후 20년이 지난 1905년에 교인수가 약 5만 명이 되었는

데 1907년에만 3만명 이 회심했고, 1909년에는 약 20만 명으로 증가했다.

4. 부흥운동의 결과로 한국인과 선교사들, 장로교와 감리교, 양반과 상놈 모두가 연합되어 성경번역, 성서공회, 송실대학, 연희전문대학, YMCA 등 연합체를 이루었다.

5. 한국교회의 부흥의 소식이 선교보고지를 통해 많은 세계에 알려지게 되자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전국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6. 이기풍을 제주도로, 최관홍을 블라디보스톡으로, 일본, 만주, 중국 등지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바뀐다.

7. 무엇보다 일제 36년의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게 된다.

그 결과 기생과 환락의 도시, 한국의 소돔 고모라로 불리웠던 평양은 거룩한 도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었다.

주님, 평양 주재 선교사님들의 정오기도회 같은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회가 오늘날 곳곳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그 결과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세계 곳곳에 일어났던 대 부흥이 오늘날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순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GATEWAY SEMINAR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each institution.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미 남부 복음주의 신학교, 'BLM은 반기독교적' 성명 발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남부 복음주의 신학교(Southern Evangelical Seminary, 이하 SES)가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규탄하는 BLM 시위 운동을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신학교는 이번주 사회 불안을 고려해 인종 차별과 사회 정의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현재의 시위 운동은 "무신론적 아젠다(godless agenda)"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모든 인간의 삶은 신성하다"는 면에서 "흑인의 삶은 소중하다"는 점을 지지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교리에 반대하는 신념을 옹호하는 BLM 운동과 단호하

게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SES는 또한 'BLM'이란 문구가 정치적 단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악의 출현을 피하면서, 인종 차별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표현할 다른 방법을 찾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성명은 BLM 조직과 관련하여 "관련 직책의 상당수는 명백한 반기독교인(anti-Christian)"이라고 비판하며 "사랑, 자유, 정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고집하고 있는 BLM은 핵가족 -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된 - 을 반대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며, 틀림없는 마르크스주의 단체"라고 주장했다.

SES는 시위 운동이 더 포용적이며 덜 오해받는 문구로 수정되어야 한



©Pixabay

다고 강조하며, 모든 인간의 삶이 신성하며, 시위 운동이 모든 인종에 대한 진실과 선,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랜트(anti-Christian) SES 총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대화는 졸업생과 지지자들로부터 수많은 요청을 받아 인종차별에 대한 성명서를 발

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엄청난 단결의 순간이 되었어야 했던 것이 BLM 운동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위 운동이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고 성경과 전통적 가족 개념을 반대한다는 점을 들어 "복음주의자들은 BLM을 포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파시스트나 좌파 트위터 무리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종주의는 성경과 정반대다. 그것은 성경에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인종 차별이란 암은 미국에 여전히 존재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인종간 화해를 끌어내기 위한 지원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White House /Tia Dufour

美 중재로 이스라엘·UAE, 관계정상화... 복음주의자들 환영

최근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외교 관계 정상화 합의에 대해 미 복음주의자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걸프 지역 아랍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과 수교한 곳은 UAE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과 UAE는 투자, 관광, 직항 항공편, 안보, 통신, 기술, 에너지 등에 관한 양자 협의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 오벌로 피스(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및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와 "특별한 전화통화를 했다"며 미국의 중재로 양국이 평화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국간의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역사적인 외교 돌파구"라고 언급하며 "보

다 평화롭고 안정되며 번영하는 중동건설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프리드먼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 합의는 '아브라함 합의'로 불릴 것"이라며 공식명칭을 "위대한 세 종교(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아버지 이름에서 따왔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UAE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며 "이제 얼음은 깨졌다.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들과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릴리언 뉴스 서비스(RNS)에 따르면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 합의'가 발표되자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음주의 자문위원회 소속이자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인 조니 무어 박사는 '아브라함 합의'

에 대해 환영하며 "복음주의자들은 기뻐한다. 수년 동안 우리 공동체는 아랍 에미리트 연합(UAE)과 그 이웃 및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 왔다"면서 "동료 신자들을 감동시킨 외교적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 감사하다"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찾고 추구하라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9년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복음주의 개신교인(72%)은 미국 유대인(47%)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RNS는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켄터키주 법원, 사진 작가에 '동성 커플 웨딩' 촬영 거부권 인정



사진 작가이자 블로거인 첼시 넬슨(Chelsey Nelson) ©Courtesy of Chelsey Nelson

미국 켄터키 주의 법원이 동성 커플의 결혼식 사진 촬영을 거부한 기독교인 사진 작가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14일 연방 법원 저스틴 R. 워커 판사는 "헌법은 동성애자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기에, 루이즈빌 시는 기독교 사진작가에게 동성간의 결혼식을 위해 일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촬영을 거부한 시민도 "동일한 사회의 일원"임을 지적하며, "케이와 레즈비언 미국인들이 '사회적 따돌림이나 폄우나 가치 면에서 열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깊은 신앙을 가진 미국인에게 입법자 다수가 통과시킨 대로 하라는 요구는 부적절하거나 무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우리 헌법상, 그들의 양심이 용납하지 않는 결혼을 축하하는 예술적 표현을 만들거나,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 작가이자 블로거인 첼시 넬슨(Chelsey Nelson)은 자신의 기독교 신념을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식만을 촬영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루이즈빌 시의 조례에 따르면, 동성 커플을 위한 봉사를 거부할 경우, 손해 배상과 함께 법원 명령, 시행 보고서를 받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 법에는 첼시가 고객(또는 미래의 고객)에게 결혼에 대한 신앙적 믿음이 그녀의 예술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없고,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도 그러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종교 자유를 수호하는 비영리단체인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성명에서 "(루이즈빌 시의) 같은 법 해석은 헌법이 보장하는 첼시의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올해 2월, 넬슨과 그녀의 예술적 자유를 지지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들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예수 2020' 표어가 적힌 표지판. ©조이스 허바드

美 대선 앞두고 수 천 명 기독교인 '예수 2020' 표어 내걸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2020'(Jesus 2020)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캠페인에 나섰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2020'(Jesus 2020)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캠페인에 나섰다

앨라배마주 라메르에 소재한 샘페이 메모리얼 침례교회(Sampey Memorial Baptist)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등지에서 5,000명 이상이 동참하는 등 미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또 "바로 지금,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 아마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샘페이 메모리얼 침례교회는 지난 5월 예배가 재개됐으나, 일부 교인들은 코로나19로 여전히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형교회가 될 필요가 없다. 우리 안의 불꽃만 있으면 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한다"고 했다.

이 교회의 조이스 허바드(Joyce Hubbard)와 마르타 사이크스(Martha Sikes)가 이 캠페인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명에 동참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캠페인 주최측은 "우리 교회를 비롯해 동네 전체가 '예수 2020' 표지판을 주문했다. 정말 멋진 일이었다. 마을의 주민들이 너무 살아나고 있다. 사람들은 표지판 자체가 아니라 붙들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을 뿐이다. 즉 우리에게 표지판이 아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들은 모든 영역에서 예수

강혜진 기자

리디머 장로교회, 맨해튼에 3천만불 건물 매입...지교회 캠퍼스 개척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가 최근 매입한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 지역 건물. ©구글

크리스천포스트는 18일 유례없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문을 닫거나 매각되는 교회가 급증하는 가운데, 새 캠퍼스 개척에 과감히 뛰어드는 미국 뉴욕시 리디머 장로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에 대해 주목했다.

더 잘 살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이웃의 변화에 기여하는 공동체이자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리디머 장로교회는 이달 14일 맨해튼의 어퍼 이스트사이드 지역에 새로운 지교회 캠퍼스를 위한 다층 건물을 2950만 달러에 매입하는데 성공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디머 교회는 1년 4개월 전부터 건물 매입을 준비해왔고, 이번 계약은 2020년 맨하탄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성사된 두 번째로 큰 계약이다.

뉴욕 부동산 중개회사인 'GPG Properties'가 소유했던 이 건물은 1910년에 설립된 면적 21,342 평방 피트(1,983 제곱미터)의 다세대 건물로 이스트91번가 150번에 위치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맨하탄에서 성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허물거나 매각된 교회 건물이 36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계 미국인인 리디머 교회 에이브 조(Rev. Dr. Abe Cho)목사는 "교회가 어퍼 이스트사이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에 앞서, 캔터키주 루이빌에 위치한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교회(SECC)'도 두 개의 지역 캠퍼스인 SE 멀티네이션, 비치몬트를 개척해 이번달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 교회는 본 교회를 포함해 총 10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백티스트 뉴스, '바이든 당선시 4번째 침례교인 부통령' 시사

미국 백티스트프레스가 15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의 러닝메이트인 카멜라 해리스(Kamala Harris) 상원의원이 역사상 5번째로 남침례교 출신의 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침례교인은 마틴 뷰 캐넌 대통령 재임 당시 '리처드 멘토 존슨',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해리 트루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던 '넥스 록펠러',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을 보좌한 '엘 고어' 부통령이 있다.

지난 11일 미국 최초의 '흑인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3 침례교회(Third Baptist Church)에 출석하고 있다. 이 교회는 아모스 브라운(Amos Brown) 목사가 시무하고 있다.

대통령 45명 중에서 침례교인은 공화당에 워렌 하딩(1921-1923), 민주당에 해리 트루먼(1945-1953), 지미 카터(1977-1981), 빌 클린턴(1993-2001)이 있다.

김유진 기자



LA 지역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 씨티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내세대에 오인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성년부/EM) 오후 2:00

LA 세계선교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New Church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갈릴리선교교회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갈보리민음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나성순복음교회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열린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성인 E모임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나성제일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후 11:00

올림픽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주님의영광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청운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유초등부 오전 11:0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산타모니카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한마음제자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한샘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한우리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LA 동부, 라스베가스

ECO선한목자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갯스월연합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영양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동부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0년 9월 21일 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가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서론, 신론) Systematic Theology I	Elijah Kim
Tue	7:00 PM - 9:00 PM	교리, 목회서신 Catechesis, Pastoral letter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사무엘 상, 하 Samuel 1st and 2nd	Timothy In Song
Thu	7:00 PM - 9:00 PM	현대신학 3 Modern Theology 3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예배학 Christian Worship	Jong Yong Kim
Sat	7:00 PM - 9:00 PM	리포트, 논문 Rearch & Writing	Young Joon Ko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포기하지 않으며 자리를 지켜내는 신앙



안 성 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승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 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하였고 결국 흥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의 압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결국 목사님의 아들인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셨지요. 결혼 후, 가족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지요. 어려서 부모님과 한 방에서 자며, 매일 새벽마다 가족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 기도로 저희 외가댁 식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자기마치 30여년의 기도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모든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편하게 낮에 영상을 찍어 보내셔도 되는데요...”하시더군요. 물론 저를 생각해 주신 말씀이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줄다리기 영상을 보게 된 때가 코로나 19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이 소년의 모습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성도들이 있건 없건 예배시간, 기도시간을 그대로 지키자!’였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렇게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성도님들도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낸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코로나를 포장하여 다가와 현재, 패색이 짙어 보이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분명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 ‘줄다리기 감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청팀과 흥팀으로 나누어 줄다리기 시합을 합니다. 경기 규칙은 줄을 당겨 상대팀의 마지막 선수가 중앙선을 넘어오게 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청팀이 흥팀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흥팀의 모든 선수들은 중앙선을 넘었고 마지막, 한 작은 아이만 혼자 남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이 소년은 중앙선 앞에서 안간 힘을 내며 버팁니다. 여러번, 선을 넘을만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승산이 없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몇 번을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참을 버티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청팀의 선수들이 순간, 힘이 빠졌는지 일순간에 줄이 수~욱 잡아당겨지는 것입니다. 순간 흥팀의 모든 선수들이 중앙선 안쪽으로 되돌아 왔고, 분위기는 삼시간에 전환되었습니다. 맨 뒤에 있던 소년은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



신 용 환 목사
나성한미교회

람들은 자신만 돌아보아야지 누군가를 공홀히 여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비난하기 좋아했던 그들에게 공홀의 메세지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존맥 아더). 힘과 능력으로 구원할 메시지를 기대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1C 유대사회가 공홀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지금 21C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세상의 소식과 모습들에는 공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보여줘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공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홀의 하나님입니다. 기억하고, 주님의 공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홀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공홀을 배워야 합니다.(출34:6, 시86:15, 시103:3) 하나님의 크신 공홀로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공홀은 예수님이십니다. (벤전2:10, 히4:15-16) 공홀히 여기면 공홀히 여김 받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공홀여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받은 만큼 서로를 공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공홀은 너무나 많음을 기억하고 공홀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공홀을 행하지 않으면 공홀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약2:13) 공홀의 반대는 판단입니다.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판단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을 공홀히 여기셨습니다. 판단과 지식과 의로움은 있지만 공홀이 없다면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변에 공홀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공홀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공홀을 받은 만큼 공홀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팔복 강해 / 마5:1-7

지난 한주동안 하나님의 공홀을 간절히 구하며 수술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오제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의 공홀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바클레이는 공홀은 다른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느껴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홀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은 그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1C의 유대사회는 로마와 헬라철학과 문화의 영양아래, 힘과 권력, 정의와 용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공홀과 자비는 천한 종이 주인에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대받고 가난했던 갈릴리 사

시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고언(苦言)



임 지 석 목사
나성세계로교회 담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기독교안에 존재하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한다. 더불어 기독교의 현실을 자각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영혼구원의 시대적 사명을 되찾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친일 카르텔 을 통한 혼동된 가치관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에 합당한 가치관 속에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일제의 식민지배에 분연히 대항했던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편승했던 세력도 적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도 특정한 정치세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거나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그들과 동조하면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친일에 뿌리를 둔 다수의 목회자들이 필요에 따라 이런저런 정권과 공생하는 가운데 기독교 안에 혼동된 가치관을 부추겨왔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온전한 민족사관을 찾는다는 것이 갈수록 어려질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누려온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민족사관을 부정하고 이러한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가치관은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독립된 것을 기념해야 할 광복절에 한국의 심장부인 광화문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어야 하는 모습에 잘 나타나 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반일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이와 같이 일본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들이 과연 한국 사람인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이 존재하는 한 정치나 종교계를 막론하고 올바른 민족사관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본다.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일제를 추종하던 반민족적인 가치관에 뿌리 내린 사람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프랑스가 과거 나치에 부역하면서 매국을

일삼았던 사람들을 철저히 청산했던 것처럼 이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청산작업이 있어야 했는데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왜곡된 가치관속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폄해하고 자신들의 친일행적을 미화하는 현실을 보면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과거 신사참배를 주장하면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수많은 목사들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얼굴을 바꾸는 모습은 한국 기독교의 비극이요 기독교 역사의 슬픈 단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획일화된 반공 제일주의의 사관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획일화된 반공 제일주의의 사관이라 하겠다. 이는 해방을 맞이한 이후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철저히 핍박했던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교회의 목사를 중에는 공산정권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실향민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남한에 정착한 후 중요 교단을 이루고 더불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세가 있는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많은 목사들이 공산 정권이나 공산주의에 대해 적대적인 것도 무리가 아니라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러한 이유로 교회마다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척하는 반공 제일주의의 사상이 공공연히 자리 잡게 되었다.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괴물은 불문율처럼 교회가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경우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보다도 더 절대적인 신도의 기준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조차 반공 '이데올로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일도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원색적인 용어들이 획일화된 반공 제일주의를 대변하는 일에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자신의 이념과 조금만 다르면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상대방

을 매도하는 현실을 넉넉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교회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상대방을 깎아 내리고 자신의 이념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다. 보수란 본래의 의미를 보더라도 전통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기존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이다. 이는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는 수구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이념은 물론 이를 지키려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한국에는 자칭 보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보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두고 싶다. 획일적인 반공 제일주의에 사로잡힌 채 좌파니 용공이니 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을 폄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이는 곧 자신들이 맹신하고 있는 반공 제일주의를 합리화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념을 뛰어넘어 '크고 기이한 일' 을

오늘날 복음도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활개를 치면서 교회가 온갖 이념이나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본다. 목사의 사상이나 신념을 주님 주시는 복음보다 우선시하는 기이한 현상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된 종교집단으로 둔갑하게 되었고 중사자들은 갈수록 광기에 가까운 신념에 빠져들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가 반공 제일주의나 혼동된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그들만의 '리더'로 전락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을 받으면 그 생명력을 잃게 되고 무용지물이 되어 언젠가는 폐기처분을 받게 될 뿐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기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교회 가 선택할 해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간 교회가 누려왔던 혼동된 가치관을 한시바빠 벗어나야 하는데 교회는 어떤 집단이나 사람

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공의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이념에 묶여서 끌려 다니면 주님께 배척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교회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우파나 좌파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념이나 사상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는 코로나 시국이라는 엄중한 국가 위기에 대한 그들의 자세에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 같은 나라를 보더라도 평소에는 정부에 대해 비난과 반대를 하지만 국가에 어려움이 닥치면 당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 교회는 한시바빠 복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과 문화와 역사까지도 과감하게 뛰어넘는 변화와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거 경험했던 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를 버리고 이제는 이것까지도 용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당시 그분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당당히 복음으로 임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분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지도자들에게 맞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관철시켰던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관습과 이론과 사상의 틀을 깨뜨리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다.

오늘도 복음전파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중심에서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당시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지만 그들과 적대적인 위치에 있기 보다는 그들의 계계를 뛰어넘는 '리더십'을 보여주셨다. 소수의 광기로 무장한 집단이 전도의 발을 어지럽히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교회가 할 일은 그들을 맞대응 하기보다 주님이 욕기 5:9에서 말씀하신 '크고 기이한 일'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크고 기이한 민족의 꿈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쌓아나갈 때 그 어떠한 갈등도 잠재울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할 일이 있는데 복음으로 민족화합의 주춧돌을 삼아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 크고 기이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50 한달분
영선한의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토 10시~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의 소원

골로새서 1:18~29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8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중략)...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 교회는 사도바울에게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한 가정교회에 목회자로 파송을 받게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빌레몬이나 에바브라나 모두 성령이 충만했고, 그들은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영혼이 천국 들어갈 수 있기를 애간장 타는 소원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서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살았기에 부흥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 교회의 사명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화목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 와서 목자를 통하여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목자가 꼭 있어야 하는데, 그 목자가 에바브라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리정통하고 성령의 은사와 영력을 나타내면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며 양떼들로 모두가 진리 정통한 가운데 성령충만해집니다. 그 교회는 하늘 소망 가꾸는 교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어 놓고, 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에게 매맞고 망신과 행패와 십자가 형틀에 모진 고통으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 이름을 불러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하면 그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성령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호적부인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 주시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으로 믿음을 결심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야 하늘 문이 열린 교회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듭난 심령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무르익었을 때, 그 영혼을 거두어 천국으로 성령이 인도해 들어십니다.

2. 화목의 비밀

19절부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넘겨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회개해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의 모형이 설명하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한이 응어리져 있어서 “이놈, 나한테 이렇게 했지!”하는 인생은 아직도 하늘 소망을 얻기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이 손해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또한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을 온전히 이루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복락이라는 영원하고 신령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찾아가 ‘전날에 우리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보니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많았더라. 그러니 내가 먼저 당신에게 용서를 빌고 화목을 청한다.’라고 해 보세요. 그 사람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잘못하긴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부담을 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하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육신이 세상의 허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적으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당신과 나하고 풀려고 왔습니다. 당신이 내게 화가 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부담이 가도록 한 책임이 내게도 있었으니 제가 용서를 빕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이란 더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이 이뤄질 것입니다. 화목이 됩니다.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맺힌 원과 한을 풀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진 다음에 마귀 앞잡이가 되어 지옥길을 재촉하는 불행한 남은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나를 낮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3. 예수님의 소원

23-24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끔씩 흔들립니다. 상당히 소망적인 것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엄습해 오면 인생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동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고문과 죽음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다”는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사도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꼭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란의 고통, 핍박, 고문, 위협, 행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과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을 받는 성화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처럼 인생설계도 하고, 그 설계대로 노력도 해보고, 실패도 해 보았지만,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나를 비워서 예수님

을 내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도가 사는 목적이고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고 더 잘 섬기는 중심이 간절하면, 예수님께서 쓰시면서 충만하신 것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목숨 불드시는 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는 목적으로 내 생애를 복음의 제물 되기를 소원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제 가슴을 눈물로 저미게 합니다. 내가 이제 양떼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어떤 고난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장 목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진리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보잘 것 없는 손으로 기도해서 온갖 병자들, 귀신을 쫓아내는 등 많은 체험을 보아셨기 때문에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안 믿는다고 해도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애가 탐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넣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고, 더 잘 섬기는 중심이 간절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면서 얼마든지 뒷바라지 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소원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본소리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인터넷 설교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40^{up}

매직 스트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안녕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올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후,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돕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통해 응답하세요.

2020CENSUS.GOV/ko
또는 전화 **844-392-2020**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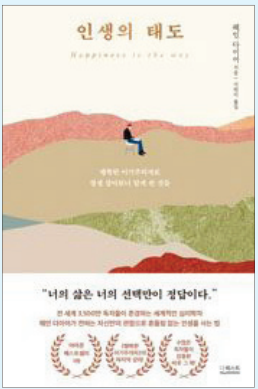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지금부터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적자 인생’... ‘흑자 인생’으로 돌리려면 태도가 중요하다



인생의 태도
웨인 다이어 | 이한이 역
더퀘스트 | 260쪽

현재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삶에 대한 해석과 태도,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인생을 사는 법!

누구나 나이가 들고, 아프고, 아이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해요. 외부의 일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지요.

내 직업이, 내 가족이나 친구가 나를 규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이 어떤 인간이라 믿으면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불행한 어제와 불안한 내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기술

적자 인생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나 흑자 인생은 자신감 가지고 살아 상대보다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해

인생은 ‘수수께끼’라고 말을 한다. 알 듯 알 듯 하면서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몰라. 크면 다 알게 돼”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막상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아보아도 더욱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태어나 살아가지만, 적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흑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적자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만, 흑자 인생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적자 인생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흑자 인생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사람은 누구나 흑자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적자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적자 인생은 가만히 있어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흑자 인생은 가만히 있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흑자 인생으로 살려면 남다르게 살아야 한다.

주어진 인생,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타인 아닌 본인이 원하는 인생 조인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태도》는 각자 주어진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웨인 다이어는 세계적인 심리학자이다. 1940년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부재로 어린 시절 고아원과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자랐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특유의 긍정성과 굳은 의지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웨인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뉴욕 세인트존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꿈, 인생, 행복 등에 대한 글을 쓰고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종신 교수직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웨인 다이어의 강연 중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것을 책으로 펴낸 것이 《인생의 태도》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 책임감 있게 반응하라

제1부 ‘책임감 있게 반응하라’에서는 태도, 선택, 기대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모든 일이 결국 자신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나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내가 믿기로 한 것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듣거나 요리해 짜이러거나 수학에 쟁쟁하거나 별로 매력적이지 않거나 가진 게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자신의 인생에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결과는 그동안 스스로 해온 선택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비난에 수레바퀴에서 내려와 자기 책임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세요. 자존감이 있다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전적으로 자신을 믿기로 선택한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감각할 필요도, 어떤 의미가 될 필요도, 관대하고 사려 깊고 친절 한 사람이 되는 삶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 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계속 해 왔던 말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각자가 한 선택만이 정답입니다. 스스로 한 선택의 힘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2. 진정한 성공은 발견하는 것

제2부 ‘진정한 성공은 발견하는 것’에서는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 보다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알려준다.

“열심히 일하고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될 하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친구를 사귀고, 모든 일을 해낸다고 말하죠. 성공한 사람은 자기 안에 성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거듭 말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실패란 ‘난 오늘 뭔가를 하는 데 실패했어. 그러니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나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사실상 뭐든 기꺼이 시도해보는 자리입니다. 그게 건강한 방식입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뭔가를 시도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규칙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관습, 전통,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상처 입고, 좌절하면 그때가 삶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순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당신이 날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할 거예요.’”

3. 인생의 사명

제3부 ‘인생의 사명’에서는 소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통해 꿈꾸는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방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

“목적의식은 규칙의 반대편에 있는 걸 배우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규칙에 관한 생각을 바꾸는 것 역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열정이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규칙을 뛰어넘으려면 ‘더 많이’, ‘더 좋게’라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적 동기, 외적인 신호를 취하지 말고 내면의 신호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취해야 합니다.”

“자기만의 고유성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할 순 없습니다. 당신은 고유한 생명체이며, 누구도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걸 알 수 없고 당신이 행동하는 것만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인생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거울에 비친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매일 대답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저자는 이 책의 끝을 이렇게 맺고 있다.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

려 있습니다.”

교수이며 작가인 척 스윈들 목사는 이런 말을 했다. “내게 있어서 태도는 교육, 재산, 환경, 성공과 실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또한 태도는 외모나 타고난 재능,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회사, 교회, 가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루하루 자신이 취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변화시킬 수도 없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이란 바로 태도다. 삶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10퍼센트와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반응 90퍼센트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당신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의 태도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이다.”

인생의 태도가 선택의 문제라면, 좋은 태도를 선택해야 한다. 좋은 태도가 곧 더 나은 나라는 존재를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좋은 태도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계속해서 그 태도를 유지해 가야 한다. 그렇지 못했다면 좋은 태도로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나의 인생이 과거에 내가 살아온 태도의 결정체라면,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태도가 미래의 나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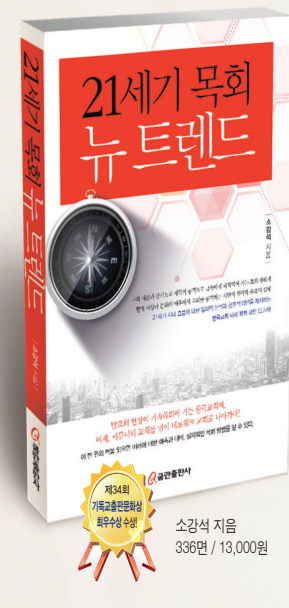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만의 인생을 좋은 태도로 아름답게 살아가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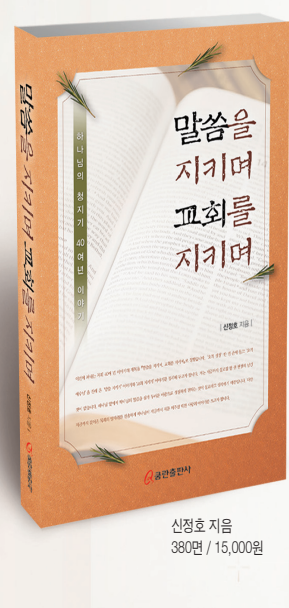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표와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례교회 담임목사로 사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매년 푸티 킹 국제평화상, 연가(기독교) 평화상, 찬양평론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일직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회정신과 아름다운 순증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339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교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대학교, 정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한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동신교회 담임, 총회 간-농어촌 부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본부총무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대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 1) Covid-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는데 애가 집중도 못하는거 같고, 관리가 잘 될까요?
- 2)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중요한 시기인데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3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8월 10일 개학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